

어머니와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정향미¹ · 안민순²

¹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마산대학 간호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Goodness-of-Fit for Mother-Preschool Child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

Jung, Hyang Mi¹ · Ahn, Min Soon²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Busan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Ma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oodness-of-fit for mother-preschool child dyads and parenting stress experienced by the mother.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500 mothers who had children aged 3 to 5 who attended one of ten kindergartens or infant schools in M City or B C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Comparison of goodness-of-fit scores for mother-preschool child dya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child's age, gender, and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and occupation, father's age and education, family income, and the chief caregiver in the fami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oodness-of-fit scores for mother-child dyad and parenting stress scores for mother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a ne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parenting sty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cord in the mother-child tempera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nursing programs to promote harmonizing of temperaments, program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the mother are considered.

Key words: Temperament, Stres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는 부모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고(Lee, 2007),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Jung,

2004).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Abidin, 1990).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 어머니

주요어 : 기질, 양육스트레스

*본 논문은 2007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2007AA119)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 (2007AA119).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Hyang Mi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995 Eomgwang-ro Busanjin-gu, Busan 614-714, Korea

Tel: 82-51-890-1559 Fax: 82-51-890-2621 E-mail: hmjung@deu.ac.kr

투고일 : 2008년 8월 30일 심사회회일 : 2008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월 13일

와 자녀 관계, 나아가서는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Crnic & Booth, 1991). 특히 학령전기는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아동과 부모 간의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며 아동이 부모와 밀착되어 있어(Hockenberry & Winkelstein, 2004),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태도는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며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Choi, 2005).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특성, 부모자신과 배우자의 특성,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umas & LaFreniere, 1993).

기질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의 개인차로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특성을 말하고(Buss & Plomin, 1975), 기질 특성은 환경의 자극이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써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 상황은 기질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기질이 평가되어야 한다(Thomas & Chess, 1977). 즉 아동의 기질은 특정한 환경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아동의 기질은 그를 둘러싼 환경 내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 태도 및 행동 즉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의 기질 특성이 부모 등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기대하는 기질 유형과 조화로운 합치를 이루게 되면 아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바람직한 발달을 하게 된다(Lerner, 1983).

이러한 부모와 아동 사이의 기질 조화적합성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행동변화로 바뀔 수 있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이 맞으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아기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이 맞지 않아 서로 힘들어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맞추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Chess & Thomas, 1999).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아동의 기질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간호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아동의 기질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Bang, 2004; Brent, Sarah, & Thomas, 2002; Kim et al., 2005; Kwon, Kim, Kim, & Jang, 2006; Nam, 2003)는 아동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아동의 기질발달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이 개인과 환경과의 적합한 조화임을 고려해볼 때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질 조화적합성과 관련된 연구(Ahn, 2005; Bae, 2004; Moon, 2004)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에서 아동의 특성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아동의 특성 이외에도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질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거나, 분석결과가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성장환경 간의 조화적합성 개념에 근거를 두고,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사이의 기질 조화적합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기질 조화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기질조화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넷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기질

외부 환경의 자극, 기대 또는 요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의 독특한 행동유형으로(Thomas & Chess, 1977),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방식에 대해 Thomas와 Chess (1977)의 아동기질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기질 조화적합성

환경의 특성, 환경적 요구 및 기대감이 유기체 자신의 능력, 동기 및 행동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Chess & Thomas, 1999),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점수에서 어머니의 기질요구도 점수를 뺀 점수이며 점수의 차가 적을수록 더욱 조화로운 것을 의미한다.

3) 양육스트레스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의미하며(Abidin, 1990), 본 연구에서는 Ab-

idin (1990)에 의해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근접모집단은 B시와 M시에 소재한 12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표본 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15로 하였을 때 544명이었으나 탈락을 고려하여 620명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9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99부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특성 12개 문항, 아동의 기질 척도 72개 문항, 어머니의 요구도 척도 72개 문항, 양육스트레스 척도 31개 문항으로 총 18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Thomas와 Chess (1977)가 개발한 아동 기질 척도(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r of age)를 Hong (199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방식에 대해 활동성, 리듬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의 강도, 반응의 세기나 강도, 반응역치, 기분상태, 주의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도의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각 8개 문항으로 총 72개 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7점으로 평가하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 특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

bach $\alpha=.774$ 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어머니의 아동의 기질에 대한 요구도는 Thomas와 Chess (1977)의 아동 기질 척도와 문항의 구성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로 하여금 그의 자녀가 이와 같이 행동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9개의 하위요인과 하위요인별 각 8개의 문항으로 총 72개 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바란다' 7점으로 평가하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 특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825$ 로 나타났다.

3)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은 아동의 기질 점수에서 어머니의 아동기질에 대한 요구도 점수를 뺀 점수의 절대 값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Kim & Yoon, 1992), 점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조화적합성이 높고, 더욱 조화로운 것을 의미한다.

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 (1990)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를 Kim (200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영역 9개 문항, 부모자녀관계 영역 10개 문항, 아동 영역 19개 문항으로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908$ 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4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머니 모임이 있는 날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8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은 귀가하는 아동의 가방에 연구 목적과 동의서 등이 포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넣어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어머니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집에서 작성한 후 다음날 아동이 등원할 때 설문지를 전달받아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요구도, 기질 조화적합성,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질 조화적합성은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Tukey검정으로, 기질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8.7%, 여아는 51.3%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8.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71.1%였으며, 전업주부가 76.1%였다. 아버지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0)

Variable	Category	n (%)
Child		
Gender	Male	244 (48.7)
	Female	256 (51.3)
Age (yr)	3	133 (26.6)
	4	194 (38.8)
	5	173 (34.6)
Birth order	1	290 (58.5)
	2	188 (37.9)
	3	18 (3.6)
Mother		
Age (yr)	Less than 35	350 (71.1)
	35 or over	142 (28.9)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276 (55.8)
	University or over	219 (44.2)
Occupation	No	375 (76.1)
	Yes	118 (23.9)
Father		
Age (yr)	Less than 35	162 (32.7)
	35 or over	334 (67.3)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186 (37.4)
	University or over	311 (62.6)
Type of occupation	Business	65 (13.6)
	Administration	180 (37.0)
	Professional	76 (15.6)
	Others	164 (33.7)
Family income (10,000 won)	≤200	130 (29.1)
	201-500	286 (64.1)
	≥501	30 (6.7)
Chief caregiver	Mother	409 (91.5)
	Grandmother	37 (8.3)
Type of family	Nuclear	434 (92.5)
	Extended	35 (7.5)

연령은 35세 이상이 67.3%였다.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91.5%였다(Table 1).

2.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요구수준,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아동 기질의 각 하위요인별 평점 평균(최대 7점)은 적응성이 5.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응성이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요구수준에서는 적응성이 5.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응강도가 2.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가장 낮은 요인(점수가 낮을수록 조화적합성은 높음)은 집중력으로 0.12점이었으며, 주의집중성이 0.38점, 반응역치가 0.52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접근회피성으로 1.04점이었으며, 반응의 강도는 0.94점, 리듬성은 0.68점 순이었다.

아동의 기질점수에 비해 어머니의 요구 점수가 낮은 요인은 활동성과 반응강도이었으며, 그 외 요인에서는 아동의 기질점수에 비해 어머니의 요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의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아동 특성의 경우 연령은 3세보다 5세 아동의 경우 반응강도 ($F=4.142, p=.016$) 요인에서, 성별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활동성($t=8.309, p=.004$)과 기분상태($F=5.016, p=.026$) 요인에서, 출생순서에서는 첫째보다 둘째 자녀인 경우 리듬성($F=$

Table 2. Mother-Child's Goodness-of-Fit (N=500)

Subscale	Child's temperament	Mother's expectation	Mother-child's goodness-of-fit
	M (SD)	M (SD)	M (SD)
Activity level	4.26 (0.88)	3.59 (0.60)	0.67 (0.89)
Rhythmicity	4.96 (0.93)	5.64 (0.67)	0.68 (0.95)
Approach-withdrawal	4.46 (1.00)	5.49 (0.73)	1.04 (1.07)
Adaptability	5.28 (0.80)	5.93 (0.66)	0.64 (0.80)
Threshold of responsiveness	3.06 (0.88)	3.58 (0.75)	0.52 (0.82)
Intensity of reception	3.69 (0.88)	2.75 (0.68)	0.94 (0.94)
Quality of mood	4.71 (0.66)	5.33 (0.56)	0.61 (0.68)
Distractibility	4.96 (0.79)	5.34 (0.72)	0.38 (0.77)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4.02 (0.71)	4.14 (0.51)	0.12 (0.73)
Total	4.37 (0.31)	4.65 (0.24)	0.28 (0.31)

Table 3. Mother-Child's Goodness-of-F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0)

Variable	Category	AL	R	A-W	A	TR	IR	QM	D	ASP	Total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Child age (yr)	3 ^a	10.09 (5.86)	11.53 (6.76)	13.52 (6.89)	9.45 (5.17)	10.40 (5.28)	13.78 (7.00)	9.82 (4.65)	9.16 (5.68)	11.42 (6.01)	96.57 (34.62)
	4 ^b	9.12 (5.41)	10.81 (6.33)	14.08 (7.26)	8.71 (5.20)	10.54 (5.63)	12.06 (6.43)	10.34 (5.08)	8.75 (5.15)	11.30 (6.14)	94.70 (36.77)
	5 ^c	9.63 (5.64)	9.99 (6.09)	12.38 (7.01)	8.91 (5.74)	10.51 (6.00)	11.60 (6.16)	10.03 (5.31)	8.29 (5.58)	11.19 (5.42)	89.92 (38.19)
	F (p)	1.137 (.322)	2.091 (.125)	2.456 (.087)	0.692 (.501)	0.022 (.978)	4.142 (.016)	0.407 (.666)	0.899 (.408)	0.051 (.950)	0.956 (.385)
	Tukey	a>b,c									
Gender	Male	10.36 (6.07)	10.78 (6.49)	13.37 (7.22)	9.42 (5.59)	10.80 (5.44)	12.51 (6.66)	10.67 (5.44)	8.95 (5.73)	11.31 (5.76)	95.55 (38.48)
	Female	8.95 (5.46)	10.59 (6.53)	13.35 (7.06)	8.54 (5.32)	10.28 (5.71)	11.92 (6.51)	9.69 (4.67)	8.37 (5.32)	11.32 (5.95)	92.44 (35.99)
	t (p)	8.309 (.004)	0.125 (.724)	0.001 (.973)	3.481 (.063)	1.168 (.280)	1.078 (.300)	5.016 (.026)	1.552 (.213)	0.000 (.994)	0.688 (.407)
Birth order	1 ^a	9.68 (5.52)	11.25 (6.86)	12.98 (6.92)	8.85 (5.37)	10.59 (5.31)	12.06 (6.49)	10.30 (5.05)	8.52 (5.47)	11.68 (5.78)	94.74 (36.13)
	2 ^b	9.54 (6.20)	9.82 (5.82)	13.61 (7.51)	8.93 (5.55)	10.37 (5.78)	12.14 (6.72)	9.90 (5.06)	8.64 (5.60)	10.85 (6.01)	91.36 (39.33)
	3 ^c	9.76 (6.07)	9.90 (6.36)	16.17 (6.17)	10.06 (5.96)	10.48 (6.38)	13.05 (4.97)	9.68 (4.33)	9.80 (5.54)	9.73 (4.56)	103.43 (32.50)
	F (p)	0.045 (.956)	3.283 (.038)	1.964 (.141)	0.394 (.675)	0.099 (.906)	0.206 (.814)	0.474 (.623)	0.505 (.604)	2.093 (.124)	0.857 (.425)
	Tukey	a>b									
Mother age (yr)	≤34	9.79 (5.81)	10.96 (6.67)	13.19 (6.61)	8.94 (5.46)	10.71 (5.58)	12.29 (6.63)	10.15 (4.94)	8.79 (5.49)	11.48 (5.80)	94.11 (36.77)
	≥35	9.19 (5.65)	9.89 (6.14)	13.59 (8.28)	9.07 (5.55)	9.97 (5.59)	11.82 (6.23)	10.11 (5.37)	8.31 (5.62)	10.76 (5.90)	92.58 (38.15)
	t (p)	1.226 (.269)	3.197 (.074)	0.359 (.550)	0.063 (.802)	1.940 (.164)	0.574 (.449)	0.006 (.937)	0.853 (.356)	1.727 (.189)	0.136 (.713)
Education	≤ High school	10.12 (5.96)	11.29 (6.86)	13.90 (7.29)	9.33 (5.74)	10.58 (5.74)	12.37 (6.62)	10.47 (5.14)	8.90 (5.56)	11.53 (5.79)	97.77 (38.98)
	≥ University	8.95 (5.56)	9.81 (5.96)	12.47 (6.82)	8.53 (5.08)	10.45 (5.41)	11.93 (6.43)	9.78 (5.00)	8.25 (5.40)	10.98 (5.95)	88.43 (34.36)
	t (p)	5.549 (.019)	7.101 (.008)	5.314 (.022)	2.795 (.095)	0.079 (.779)	0.599 (.439)	2.450 (.118)	1.855 (.174)	1.179 (.278)	6.048 (.014)
Occupation	No	9.73 (5.73)	10.82 (6.43)	13.72 (7.41)	9.01 (5.35)	10.48 (5.51)	12.01 (6.31)	10.47 (5.00)	8.60 (5.41)	11.39 (5.73)	95.01 (36.32)
	Yes	9.46 (6.12)	10.16 (6.68)	12.03 (6.12)	8.94 (5.74)	10.76 (5.84)	12.63 (6.98)	9.29 (5.27)	8.90 (5.83)	10.96 (6.12)	90.74 (40.15)
	t (p)	0.226 (.635)	1.046 (.307)	5.624 (.018)	0.018 (.893)	0.249 (.618)	0.913 (.340)	5.422 (.020)	0.299 (.585)	0.563 (.453)	0.892 (.345)
Father age (yr)	≤34	10.02 (5.49)	11.93 (6.63)	13.50 (6.77)	9.05 (5.27)	10.75 (5.22)	12.93 (6.79)	10.24 (4.60)	9.33 (5.75)	11.68 (5.82)	99.51 (35.35)
	≥35	9.51 (5.97)	10.04 (6.38)	13.19 (7.22)	8.88 (5.41)	10.38 (5.74)	11.84 (6.39)	10.14 (5.31)	8.32 (5.36)	11.12 (5.88)	90.80 (37.35)
	t (p)	0.947 (.331)	10.603 (.001)	0.229 (.633)	0.118 (.731)	0.547 (.460)	3.431 (.065)	0.044 (.835)	4.131 (.043)	1.107 (.293)	5.002 (.026)
Education	≤ High school	10.63 (6.33)	11.55 (6.52)	14.00 (7.48)	9.13 (5.51)	10.17 (5.53)	13.11 (6.89)	10.53 (5.23)	8.63 (5.52)	12.07 (5.92)	98.30 (37.38)
	≥ University	9.01 (5.37)	10.08 (6.40)	12.82 (6.80)	8.79 (5.27)	10.58 (5.40)	11.62 (6.28)	9.93 (4.99)	8.64 (5.49)	10.85 (5.76)	90.57 (36.08)
	t (p)	10.455 (.001)	6.830 (.009)	3.546 (.060)	0.512 (.474)	0.734 (.392)	6.747 (.010)	0.756 (.186)	0.002 (.969)	5.741 (.017)	4.124 (.043)
Type of occupation	Business	9.51 (5.83)	10.44 (6.50)	13.41 (7.59)	9.53 (5.82)	10.25 (4.67)	12.30 (7.14)	9.72 (4.85)	8.80 (6.24)	11.70 (5.78)	91.56 (41.99)
	Administration	8.90 (5.20)	10.40 (6.45)	13.75 (6.41)	8.72 (4.82)	10.64 (5.84)	11.86 (6.51)	10.14 (5.20)	8.80 (5.51)	11.64 (6.31)	91.16 (34.96)
	Professional	9.78 (5.77)	11.67 (7.00)	12.66 (7.42)	9.32 (6.12)	10.78 (6.04)	13.23 (6.56)	9.77 (4.98)	9.40 (5.98)	11.07 (5.63)	98.13 (38.62)
	Others	10.39 (6.34)	10.29 (6.12)	13.15 (7.51)	9.03 (5.70)	10.27 (5.27)	11.99 (6.22)	10.57 (5.12)	8.20 (4.82)	11.00 (5.58)	95.44 (36.99)
	F (p)	2.060 (.104)	1.098 (.350)	0.512 (.674)	0.475 (.700)	0.272 (.846)	1.028 (.380)	0.755 (.520)	1.047 (.371)	0.521 (.668)	0.688 (.560)
Family Income (10,000 won)	≤200	10.38 (5.61)	11.60 (6.07)	14.35 (7.74)	9.70 (5.83)	10.61 (5.40)	12.37 (6.61)	11.04 (5.33)	8.94 (5.36)	12.10 (5.65)	100.68 (36.07)
	201-500	9.62 (5.92)	10.59 (6.80)	13.46 (6.52)	8.83 (10.38)	10.90 (5.92)	12.01 (6.47)	10.15 (4.82)	8.71 (5.51)	11.33 (5.86)	92.45 (36.73)
	≥501	9.00 (10.38)	8.93 (5.80)	11.49 (7.06)	8.52 (5.53)	9.66 (4.80)	12.42 (6.12)	9.55 (5.62)	8.75 (6.05)	9.95 (5.68)	85.69 (35.07)
	F (p)	1.498 (.225)	4.309 (.014)	4.107 (.017)	1.586 (.206)	1.458 (.234)	0.205 (.815)	2.439 (.088)	0.085 (.919)	3.452 (.032)	3.355 (.036)
Chief caregiver	Mother	9.71 (5.81)	10.51 (6.42)	13.54 (7.28)	9.11 (5.52)	10.62 (5.67)	12.00 (6.41)	10.13 (4.93)	8.68 (5.51)	11.32 (5.81)	93.85 (36.88)
	Grandmother	10.71 (6.08)	12.38 (6.70)	12.84 (5.47)	9.16 (5.63)	10.67 (5.65)	14.56 (7.58)	11.08 (6.27)	9.35 (6.22)	12.18 (6.80)	102.78 (42.13)
	t (p)	1.037 (.309)	3.043 (.082)	0.337 (.562)	0.003 (.959)	0.002 (.960)	5.184 (.023)	1.300 (.255)	0.528 (.468)	0.763 (.383)	1.433 (.232)
Type of family	Nuclear	9.81 (5.90)	10.78 (6.61)	13.57 (7.20)	9.10 (5.57)	10.65 (5.64)	12.33 (6.67)	10.19 (5.18)	8.75 (5.52)	11.37 (5.84)	95.02 (37.95)
	Extended	8.69 (4.69)	10.12 (5.42)	12.25 (5.24)	8.66 (4.63)	11.08 (5.42)	11.11 (5.10)	10.32 (4.51)	8.21 (5.28)	11.55 (6.58)	86.82 (30.36)
	t (p)	1.445 (.230)	0.383 (.536)	1.277 (.259)	0.207 (.650)	0.212 (.645)	1.226 (.269)	0.025 (.875)	0.367 (.545)	0.035 (.852)	1.243 (.266)

AL=activity level; R=rhythmicity; A-W=approach-withdrawal; A=adaptability; TR=threshold of responsiveness; IR=intensity of reception; QM=quality of mood; D=distractibility; ASP=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3.283, p=.038) 요인에서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낮았다.

어머니 특성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활동성(t=5.549, p=.019), 리듬성(t=7.101, p=.008), 접근회피성(t=5.314, p=.022) 요인 및 전체 점수에서(t=6.048, p=.014),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접근회피성(t=5.624, p=.013), 기분상태(t=5.422, p=.020) 요인에서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낮았다.

아버지 특성에서 연령이 35세 미만보다 35세 이상인 경우 리듬성(t=10.455, p=.001), 주의전환성(t=4.131, p=.043) 요인과 전체 점수(t=5.002, p=.026)에서,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활동성(t=10.455, p=.001), 리듬성(t=6.830, p=.009), 반응강도(t=6.747, p=.010), 집중력(t=5.741, p=.017) 요인과 전체 점수(t=4.124, p=.043)에서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낮았다. 가족 관련 특성에서 월수입이 200만 원 미만보다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리듬성($t=4.309, p=.014$), 접근회피성($t=4.107, p=.017$), 집중력($t=3.452, p=.032$) 요인과 전체 점수($t=3.355, p=.036$)에서, 주 양육자는 어머니인 경우 반응강도($t=5.184, p=.023$) 요인에서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낮았다.

4.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점수는 평점평균 2.27점(최대 5점)이었으며,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 영역이 2.39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 영역에서 2.27점, 부모자녀관계 영역 1.79점이었다(Table 4).

5.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와 아동의 전체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와 양육스트레스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9, p=.000$). 즉,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요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기질 조화적합성의 9개 하위요인과 양육스트레스의 3개 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기질 조화적합성의 리듬조화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결과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반응강도와 아동 영역($r=.330, p=.000$)이었으며, 아동 기질의 적응성($r=.316, p=.000$)과 주의전환성($r=.312, p=.000$)은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기질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을 조사하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동일도 구로 측정된 기질 조화적합성 연구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관련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요인은 집중력으로 0.12점이었다. 이는 아동의 집중력 점수가 4.02점으로 전체 기질 점수 4.37점보다 낮았으며,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 또한 4.14점으로 전체 요구도 점수 4.65점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집중력은 특정한 행동이 진행되는 시간과 방해를 받았음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정도인데(Thomas & Chess, 1977),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특성상 집중력이 높지 않고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적임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적게 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접근회피성으로 1.04

Table 4. Parenting Stress of Participants (N=500)

Variable	Min	Max	M (SD)
Parent distress	1.00	4.22	2.27 (0.65)
Dysfunctional interaction	1.00	3.50	1.79 (0.45)
Difficult child	1.08	3.75	2.39 (0.49)
Total	1.16	3.29	2.17 (0.42)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other-Child's Goodness-of-Fit and Parenting Stress (N=500)

	Parent distress	Dysfunctional interaction	Difficult child	Total
	r (p)	r (p)	r (p)	r (p)
Activity level	.179 (.000)	.149 (.000)	.201 (.000)	.221 (.000)
Rhythmicity	.154 (.000)	.064 (.133)	.226 (.000)	.197 (.000)
Approach-withdrawal	.149 (.001)	.214 (.000)	.214 (.000)	.228 (.000)
Adaptability	.215 (.000)	.256 (.000)	.296 (.000)	.316 (.000)
Threshold of responsiveness	.140 (.001)	.147 (.001)	.220 (.000)	.208 (.000)
Intensity of reception	.204 (.000)	.151 (.000)	.330 (.000)	.299 (.000)
Quality of mood	.214 (.000)	.236 (.000)	.266 (.000)	.301 (.000)
Distractibility	.219 (.000)	.199 (.000)	.321 (.000)	.312 (.000)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165 (.000)	.226 (.000)	.271 (.000)	.277 (.000)
Total	.254 (.000)	.276 (.000)	.349 (.000)	.359 (.000)

점이었다. 이는 아동의 접근회피성 점수가 4.46점으로 전체 기질점수보다 낮았으나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가 5.49점으로 높아져 점수 차가 커진 것으로, 즉 접근회피성 요인에서 부조화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접근회피성은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난감, 낯선 사람 등의 새로운 자극에 대한 아동의 최초의 반응을 말하는데(Thomas & Chess, 1977), 접근회피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며, 어머니는 아동의 이러한 기질 특성이 더 높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측정도구가 다르지만 Bae (2004)의 연구에서 자녀가 낯선 사람이나 장소, 새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쉽게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적응성 요인에서 어머니의 요구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Moon (2004)의 연구에서 기본과 접근회피성 요인의 기질 조화적합성이 높고, 주위분산성과 주의집중성의 기질 조화적합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상이한 결과로 향후 기질의 각 하위요인에서 반복적 분석, 발달단계별 또는 지역별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질의 9개 요인 중에서 활동성과 반응강도에서 아동 기질 점수에 비해 어머니의 요구수준이 낮았으며 부조화도가 크게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운동능력, 인지 기능 및 언어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므로(Hockenberry & Winkelstein, 2004), 아동이 매우 활동적이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이러한 아동의 기질 특성에 대해 침착하거나 온순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바꾸기 힘든 개인의 특성이지만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조화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양육방식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질 조화적합성에서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활동성 요인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ung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남녀 차별이 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성별에 따른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외 연구(Luster & Okagaki, 1993)에서도 부모가 활동성이 높은 여아에게는 보다 제한적으로 대하고 남아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보다 수용적이기 때문에 남아의 활동성이나 주의집중성은 양육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연령에서는 5세 아동이 3세 아동보다 반응강도 요인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 (2003)은 학령전기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반응은 긍정적이 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발달됨으로써 반응의 예민함과 강도가 높게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3세 아동의 경우 반응강도가 높은 반면 어머니

의 요구는 낮아서 부조화를 이루며, 5세 아동의 반응강도는 낮고 어머니의 요구는 다소 증가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에서 둘째가 첫째보다 리듬성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이 둘째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증가하게 되며 아동의 생물학적 기능에 있어서의 규칙성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적절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Jung (2002)은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두 명 이상일 때보다 융통성 대 경직성, 규칙성 대 섭식 요인에서 조화적합성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며, 향후 아동의 출생순위 또는 자녀 수와 기질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 특성에서는 대졸 이상에서 활동성, 리듬성, 접근회피성 및 전체에서, 취업모가 접근회피성 및 기분상태에서 기질 조화적합성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며(Kim et al., 2005), 취업모의 경우 경험하는 직업관련 특성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의 요인이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ang, 2004; Park & Rim, 2002)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모가 23.9%로 적고 기질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2개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해석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또는 취업모의 경우 직업의 종류나 만족도, 자녀양육 참여정도 등에 따른 모아 기질 조화적합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 특성에서는 35세 이상에서 리듬성과 전체에서, 대졸 이상에서 활동성, 리듬성, 반응강도와 전체에서 기질 조화적합성이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특성과 모아 기질 조화적합성에 대한 분석 연구가 없어서 그 관련성에 대한 직접 논의가 어렵지만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양육자신감이 높은 것처럼(Kim et al., 2005), 아버지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은 경우 경험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어 모아 기질 조화적합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와 다른 관점에서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Lee, 2007), 아동의 성장발달 영향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어머니만을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아버지의 특성에 대한 분석,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모아 기질 조화적합성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과 관련된 특성에서 월수입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리듬성, 접근회피성, 집중력과 전체에서 기질 조화적합성이 높았다. 아동의 중요한 환경변인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Lee & Seo, 2006), 아동의 기질은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아동 기질 특성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어머니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27점으로 보통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 아동 영역이 2.3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2007)의 연구에서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2.38점과 유사하고,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2004)과 Kim 등(2005)의 연구에서 부모 영역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자녀의 반항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므로 아동의 문제나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의 기능을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Crinic & Greenberg, 1990),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전기 아동으로 영아기에 비해 활동성, 호기심이 높는데 이러한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지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리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기질 조화적합성과 손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질 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의 분류는 다르지만 Jung (2002)은 활동수준-일반적 요인, 규칙성-수면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Moon (2004)은 일반적 활동수준, 주의분산성, 주의집중성 요인에서 조화를 이룰 때 양육스트레스는 낮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질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반응강도와 아동영역의 양육스트레스였고, 다음으로 적응성 및 주의전환성과 전체 스트레스 순이었다. 반응강도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고 적극적인 반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이 있으며, 적응성은 사회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이기적이거나 의존적일 수 있고, 주의전환성은 호기심이 많으나 산만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Ahn, 2005).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기질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조화적합성은 집중력 요인에서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접근회피성에서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남아, 3세아, 출생순위가 첫째, 어머니가 고졸 이하이거나, 전업주부, 아버지가 35세 미만이거나 고졸 이하, 가족 월수입이 적은 경우 기질 부조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부조화를 이룰 수

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형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쌍방향적인 관계를 중요시함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기질조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와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M시와 B시에 소재하는 12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어머니를 편의표집하였으며 총 500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조사 도구는 아동 기질, 아동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양육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Tukey 검정,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이 가장 높은 요인은 집중력 0.12점이었으며, 주의집중성 0.38점, 반응역치 0.52점 순이었다. 기질 조화적합성이 가장 낮은 요인은 접근회피성 1.04점이었으며, 반응강도 0.94점, 리듬성 0.68점 순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은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유무,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 가족 월수입, 주 양육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27 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 점수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손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은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부조화를 이룰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양육행위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 및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기질조화 중재 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의 변화 및 평가 등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hn, M. S. (2005). Effects of a matern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temperament theory on the temperamental goodness-of-fit between mother and chil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044-1053.
- Bae, K. S. (2004). *Infant's temperament and self-esteem: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Bang, K. S. (2004). Child rearing attitude and burde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0, 217-224.
- Brent, A. M., Sarah, J. S., & Thomas, R.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98-1011.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NY: Wiley.
- Chess, S., & Thomas, A. (1999). *Goodness of fit: Clinical application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 Choi, S. W.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 perceived child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ri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Hockenberry, M. J., & Winkelstein, W. (2004).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New York, NY: Mosby.
- Hong, K. O. (1994).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ers' patterns of attachment and their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Jung, J. Y. (2002).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 Relations to the mother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 and the mother-child's goodness of f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Jung, Y. A. (2004).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M., & Yoon, G. (1992). The effects of temperamental goodness-of-fi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5, 55-72.
- Kim, H. M. (2004). *The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S., Oh, K. S., Shin, Y. H., Kim, T. I., Yoo, H. N., Sim M. K., et al. (2005).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1, 290-300.
- Kim, H. S., Sim, M. K., Kim, T. I., Kathleen N. F., Rosemary White-Traut C., & Carole K. A. (2007).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confidence in first-time mothers of infants in their first yea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119-127.
- Kwon, M. K., Kim, H. W., Kim, N. S., & Jang J. A. (2006).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 314-321.
- Lee, Y. S., & Seo, S. J. (2006).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 143-155.
- Lee, Y. Y. (2007).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logic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44, 143-155.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MI: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on, C. N. (2004). *The relation between mother-child's goodness-of-fi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Nam, H. S. (2003). *A difference of parenting stress dependant o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heir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S. Y., & Rim, M. R. (2002). Work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job characteristics, day car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 57-6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NY: Brunner/Mazel.